다시 스무 살, 마주한 건 어머니 사랑이었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㉜ '고백부부'(2017)



드라마 '고백부부'는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 이혼 부부가 사랑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손에 들고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합창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어버이'가 부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도 노래에는 왜 어머니만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어버이날의 시작이 '어머니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보며 그 존재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존재가 '어머니,' '엄마'임을 절절히 느끼고 있으니, 이제야 철이 드는가 싶기도 하다.

한국대학교 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마진주(배우 장나라)는 살짝 결벽증이 있는, 나름 앞날이 창창한 깍쟁이 엘리트였다. 그런데 스무 살에 처음 나간 과 미팅에서 만난 최반도(배우 손호준)와 졸업과 동시에 덜컥 결혼을 했고, 지금은 두 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줌마가 됐다. '독박육아'에다 가정에 무관심한 반도 때문에 지쳐가던 진주는, 반도의 외도가 의심되는 사진을 보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잠에서 깬 진주의 눈앞에 1999년 사학과 1학년 시절이 펼쳐진 것이다.

한편 한국대학교 토목과 학생으로서 자존심 빼면 시체인 열혈 상남자였던 반도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무조건 굽신거려야 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다. 나름 가족을 돌보겠다는 일념으로 자존심까지 팔아가며 버티고 있지만 진주에게 듣는 말은 '쫌팽이'라는 핀잔뿐. 박 원장의 불륜 문제까지 처리하다 진주에게 외도를 의심받고, 참다못해 이혼을 한다. 그리고 반도 역시 이혼 판결 다음 날, 진주처럼 1999년 스무 살 시절로 돌아와 있다.

스무 살에 처음 만나 18년을 함께했지만, 서로에게 실망하고 이별을 택한 진주와 반도는 새롭게 시작된 대학 시절이 마냥 좋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얽히지만 않으면 결혼할 일도 없으니, 힘들었던 그 세월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스무 살 진주에게는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같은 과 선배이자 대학교 이사장 아들인 정남길(배우 장기용)이 있고, 반도에게는 혼자 짝사랑하던 무용과 민서영(배우 고보결)이 있다.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펼칠 일만 남았다.

드라마 '고백부부'는 20대에 풋풋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을 맺은 부부가 현실에 시달리다가, 30대 후반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다는 판타지 설정을 통해 사랑과 부부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드라마는 '부부'보다는 '어머니'에게 초점을 더 맞추고 있음을 알게 된다.

드라마 초반부에서 두 주인공이 각자 과거로 돌아가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진주가 눈을 뜨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진주는 자신을 깨우는 고은숙(배우 김미경)을 보자마자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꿈에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오늘 꿈 계 탔네"라며 은숙을 부둥켜안고는 자신도 데려가라고 서럽게 운다. 그러다가 은숙의 등짝 스매싱과 함께 이 상황이 현실임을 알게 되는데, 자신이 1999년의 시공간에 있음을 깨달은 진주는 "아휴, 엄마"를 중얼거리며 은숙을 졸졸 따라다닌다.

진주가 이렇게 애틋하게 '엄마 바라기'가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현실에서는 은숙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리운 엄마를 만나고 만질 수 있으니, 진주는 단 한순간도 은숙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엄마 품에서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반도와 엮이지 않으려 애쓰는 진주지만, 정작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두고 온 아들 서진 때문이다. 반도와 이어지지 않고 현실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영영 서진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반도와 함께하는 미래는 바라지 않지만,

과거로 간 이혼 부부가 찾는 사랑 의미
시간 여행 끝에 어머니의 마음 마주해
〈부모은중경〉 속 어머니 은혜 10가지
'어머니의 마음' 가사 속에 오롯이 담겨
독송과 노래 통해 어버이 사랑 되새기길



'고백부부' 포스터.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자신 또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없는 삶 또한 상상할 수가 없다.

'고백부부'에서 가장 시청자의 눈물을 쏟게 하는 장면은 진주가 미래에서 왔음을 눈치챈 은숙이 진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은숙의 다리를 베고 누운 진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숙은 "이제 그만 네 새끼한테 가"라고 말한다. 깜짝 놀라 일어난 진주에게 은숙은 담담하게 말을 잇는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근데 그건 알아. 부모 없이는 살아져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은숙은 오직 자식을 향한 애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서진을 그리워하던 진주가 잠꼬대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현실로 돌아가면 어머니 은숙과 헤어져야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들 서진을 만날 수 없는 상황. 미래 세상에 자신이 없음을 눈치챈 은숙은 "울 거 없어. 어떤 슬픔도 무뎌져. 단단해져. 그렇게 돼 있어"라며 위로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눈물을 토해내는 진주. 은숙은 딸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말을 전한다. "자식 키우다 보면 다 돼. 다 돼."

'고백부부'에는 은숙과 진주의 모녀 이야기 외에도 정남길과 계모, 진주의 친구 천설(배우 조혜정) 모녀, 반도의 누나 자연(배우 고은민) 모자, 그리고 반도와 장모 은숙과의 이야기 등 여러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한다. 제목은 '과거로 돌아간 부부'이지만 내용은 '과거로 돌아가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는 부부' 이야기인 셈이다.

불교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경전이 바로 〈부모은중경〉이다. 제목에는 부모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드라마 '고백부부'처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노고를 담고 있다. 〈부모은중경〉은 어머니의 은혜를 다음의 열 가지로 설명한다.

① 품에 품고 지켜주는 은혜 ②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④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 ⑤ 마른자리를 주려고 진자리로 가는 은혜 ⑥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⑦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⑧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⑨ 자식을 위하여 악업을 짓는 은혜 ⑩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

이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표현한 노래가 처음에 이야기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양주동 시인의 시에 이홍렬이 곡을 붙여 1930년대에 발표한 이 노래의 1절에서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라는 가사는 어머니의 열 가지 은혜 중 두 번째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와 세 번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라는 가사는 다섯 번째 '마른자리를 주려고 진자리로 가는 은혜'를 전하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의 가사를 음미하면 할수록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어버이날 흔히 부르는 노래 중에 '어머님 은혜'라는 동요가 있다. 윤춘병의 시에 박재훈이 곡을 붙여 1948년에 발표했는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 나는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라는 1절 가사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사를 쓴 윤춘병은 일제강점기 때 감리교 목사로 활동한 평양 출신의 인물이다. 광복 이후 서울에서 어렵게 사는 와중에 영양실조와 과로로 병석에 누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담아 시를 지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 은혜'에는 기독교 정서가 담겨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3절 가사에 분명히 드러난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처럼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노래 두 곡에 불교와 기독교의 정서가 나란히 담겨 있다. 불자라면 '어머님 은혜'보다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담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면 어떨까. 아울러 불교의 효를 대표하는 〈부모은중경〉을 차분히 독송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